

# 주거비 부담 클수록 박탈감도 커진다

###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높다 41.4%...임차가구 73% 박탈감 느껴 국토연구원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지급대상·지원 확대 검토"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 이외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박탈감도 덩달아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4일 펴낸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891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다.

연구원은 주거비를 실제 주거 목적의 주택 거주에 드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 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 분야의 지출과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처분 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

처분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 소득에 따라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했다.

연구원은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주거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지만,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고, 특히 월세가구에서 이런 인식은 6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58%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거 점유유형을 임차와 자가로 구분해 박탈감을 조사했을 때, 임차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박탈

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2.9%에 달했다. 반면 반대 경우는 16.9%에 불과했다.

주거비 지출에 따라 비주거 분야에 지출하는 금액도 차이가 벌어졌다. 예컨대 특정 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하면, 박탈 지표로 측정할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 분야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 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주문했다.

조정의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임차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 지급대상·지원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며 "이자를 부담 관리를 위한 안심전환대출 제도와 더불어 임차 가구의 주거 상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지원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15~29세 청년 체감 경제고통지수 전연령대 중 가장 높아...40대 2배

취업난과 물가 급등으로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를 활용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로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15~29세)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5.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고 14일 밝혔다.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다. 60대가 16.1로 그 다음 높았고, 30대(14.4), 50대(13.3), 40대(12.5) 순이었다.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한 물가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청년층이 체감한 물가상승률은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0배 수준에 달했다. 청년층이 물가상승을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체감한 원인은 이들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21.6%), 교통(12.0%), 식료품(8.5%)의 가격 상승이 지목된다.

전경련은 "청년층이 많이 소비하는 분야에 물가 상승이 집중되면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이들이 생활비 상승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어붙은 취업시장도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했다. 올해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은 19.9%로, 코로나 전에 비해서 낮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았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청년 취업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17~2020년 배출된 대졸자는 223만4000명인 데 반해, 신규 고학력 일자리는 126만4000개로 절반에 그쳤기 때문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14일 광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관내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대상 2022년 모바일헬스케어 참여자들이 북구보건소 직원에게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관리 잘된 해수욕장에 신안 대광해수욕장 선정

### 부산 해운대·강원 속초 등

해수수산부는 해수욕장 평가위원회를 열고 관리우수 해수욕장에 신안 대광·부산 해운대·강원 속초 해수욕장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설개선 지원 해수욕장으로는 장흥 수문·동해 망상·태안 꽃지 해수욕장이 지정됐다.

코로나 방역 관리에 평가 중점을 뒀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에는 해수욕장 시설 관리 역량, 이용객 만족도, 테마해수욕장 활성화 노력과 향후 발

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해수부는 관리우수 분야 해수욕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수부 장관 표창과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설개선 분야 해수욕장에는 시설 개선비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올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편히 즐길 수 있도록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유공자 5명도 발굴해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연합뉴스

## '사법개혁 초석'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

### 향년 87세...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특허·행정법원 신설

윤관(사진) 전 대법원장이 14일 노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7세.

1935년 해남 출생인 윤 전 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8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살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사법제도의 지각변동' 시기로 평가한다.

윤 전 원장의 사법개혁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주도했다. 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정치권,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32명이 참여했는데, 윤 전 원장은 인권변호사들도 위원으로 들어오게 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히는 것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1997년 시행)이다.

이 제도가 있기 전까지 판사는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했다. 피의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지기보다 우선 수사부터 한 뒤 추가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편의 중심의 관행도 한몫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1996년 15만4435건에 달하



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2만1988건이 됐다. 영장 발부율도 같은 기간 92.6%에서 82.0%로 떨어졌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어진 구습을 타파해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는 데도 고인은 심혈을 기울였다. 일선 판사실은 물론 대법원장실까지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고, 청와대에 법관을 파견하거나 정보기관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는 일을 막았다. 대통령이 외국을 오갈 때면 대법원장이 공항에 나가 맞이하던 관례도 없앴다.

퇴임 후에는 2000년 영산대 석좌교수·명예총장에 취임했고 2004년부터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상훈으로는 최조준정총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이 있다. 자랑스러운 연세인상(1994년)과 자랑스러운 해남읍씨상(2000년)도 받았다. 저서로 '신형법률'을 남겼다.

유족으로 부인 오현 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씨, 남동생 윤전(변호사)씨 등이 있다. 장례는 법원장(葬)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연합뉴스

## 국민 100명 당 7명 당뇨...작년 356만여명 진료

### 5년간 연평균 5%이상 증가...중년 95%, 20대 12% 늘어

식습관에 따른 비만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당뇨병 환자가 최근 5년간 연평균 5% 이상 증가, 국민 100명 당 7명 정도가 당뇨병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중 95%는 중년 및 노년기 환자였지만, 젊은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당뇨병(E10~E14) 진료 현황을 발표했다.

당뇨병 진료인원은 2017년 286만6540명에서 2021년 356만4059명으로 69만7519명(24.3%)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6%다.

남성 환자가 157만3647명에서 198만6267명으로 26.2%, 여성 환자가 129만2893명에서 157만7792명으로 22.0% 늘었다.

지난해 기준 당뇨병 진료인원을 연령대(생애주

기)별로 보면, 중년기(40세~64세)가 48.7%(173만6651명)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65세 이상)가 46.6%(166만1757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남성 환자는 중년기 비중이 55.0%, 여성 환자는 노년기 비중이 55.2%로 가장 높았다.

전체 중 95% 이상이 중년·노년이지만 젊은 당뇨병 환자도 증가세다. 20대 환자는 2만4117명에서 3만7916명으로 연 평균 12.0%, 30대 환자는 9만2035명에서 11만5712명으로 5.9% 증가했다.

당뇨병은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발, 말기신부전 등 합병증을 흔하게 일으킨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 중 1위이며, 급성 합병증인 고삼투압성 고혈당 상태와 케톤산증은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3605-5000

**특수경매, 대출 컨설팅**  
부동산 사고팔고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급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분묘 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영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영고 신고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영고기간 내에 영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 다음의 일정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여주시 소라면 덕암리 산 73-1번지
2. 분묘가수: 1기
3. 개장일: 2022년 11월 15일
4. 개장방법:
  - ① 유연고분묘 - 영고자와 협의 후 개장
  - ② 무연고분묘 - 영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납골당 불만)
5. 안장장소: 여주시 소라면 덕암리 494 (여주시 평암동불)
6. 영고기간: 분묘주 10일
7. 영고기간: 최초 영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8. 공고인: 김동연
9. 신고처: 여주시무선2길 39 207동 704호 (010-2705-8190)
10.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원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타: 분묘개장 공고 후 식별이 곤란한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2년 11월 15일  
공고인: 김동연

**분할합병공고**  
(주권재용 및 재산사외의제출공고)

주식회사 거성산업개발(이하 "갑"이라 한다)과 일광전기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기 2022년 11월 14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가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각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11월 15일

"갑" 주식회사 거성산업개발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248(상동)  
대표이사 배승우

"을" 일광전기 주식회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동로16번길 7, 2층  
대표이사 강장기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

**자본감소공고**

1. 당회사는 2022년 11월 14일 사원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339,000,000원의 자본금을 감소하여 금 900,000,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2.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5일  
**유한회사 성화토건**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감바위길 345, 107호  
의장 대표이사 한우정

70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대 •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 525-3761	• 신안 222-9171
	• 광산 571-7658	• 오산 266-7801
	• 용동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8001	• 중앙 222-9054
	• 충장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동신 673-6836	• 송학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 369-1625	• 문흥 376-7153
	• 치평 376-6511	• 동명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화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